

삼성SDI, 브라운관 사양산업 원말?

10월 판매량 600만대 돌파 예상 ... 연말 성수기에 신형시장 수요확대

PDP와 LCD 등 첨단 평판 디스플레이(FPD)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초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양산업으로 여겨지고 있는 브라운관 판매가 예상 밖으로 호조를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삼성SDI는 10월 브라운관(CRT) 판매량이 600만대를 돌파해 최대 610만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0월 판매량 600만대 돌파는 삼성SDI가 1970년부터 브라운관 사업을 시작한 이후 사상 최고기록이다.

이에 따라 삼성SDI는 국내의 브라운관 생산라인을 3조2교대로 100% 완전가동하며 주문량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같은 브라운관 생산기업인 LG필립스디스플레이가 브라운관 부문의 급격한 위축으로 2003년 초 예상했던 것보다 큰 폭의 구조조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선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CRT 판매 신기록은 연말이 디스플레이 최고 성수기이고 북미, 유럽 등 주요 시장의 IT경기 회복세와 중국, 인디아, 동남아 등 신형시장의 수요확대에 힘입어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첨단 FPD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브라운관이 우수한 화질과 저렴한 가격 등으로 여전히 디스플레이의 주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SDI의 3/4분기 CRT 판매량은 2/4분기 1400만대보다 16% 늘어난 1600만대를 기록했다.

삼성SDI는 최근 기업설명회를 통해 FPD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CPT(TV용 브라운관)가 월등한 품질 및 가격경쟁력, 중국과 인디아 등 신형 성장시장의 확대, 디지털방송 수요 등을 바탕으로 한해 수요가 1억6000만 개로 예상되는 2007년까지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0/28>